변리사스쿨

2024
변리사스쿨 입문자 수험가이드

목차

01.
변리사란

02.
변리사 시험 공고

03.
1차 공부 방법

04.
합격수기

변리사란

변리사법 제2조에 의하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리사는 이와 같이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 대행이나 소송대리를 주된 업무로 합니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

-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1-1. 진출분야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의 심사관, 인하우스(기업) 학계와 연구소, 금융권 등

1-2 전망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기술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가면서 기업들은 지금 세계 전지역을 무대로 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무기로 하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향후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변리사 인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등의 권리취득과 관련한 서비스의 수요와 이러한 권리충돌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관련 서비스의 수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먼저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발명 등에 따른 권리취득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받게 된다.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 특허를 받아야만 일정기간 동안의 독점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권리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전체출원건수 중 대리인에 의한 출원이 85%이상을 상위)는 증가하게 된다.

변리사란

특히 최근에는 국가간의 벽을 뛰어넘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제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건수의 증가, 특히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출원건수의 급증은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도 변리사의 인력수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법원이 개원한 이후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인은 변리사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변리사 업무에서의 전문화 경향도 고용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화의 영향으로 각 분야별로 전담변리사를 두는 대규모의 합동특허사무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즉 기존에는 단독개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향후 많은 수의 변리사가 합동으로 개업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변리사자격 취득자의 경우 단독개업보다는 이들 합동특허사무소에 취업하는 인원이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특허출원이 많은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기계, 화공 등을 전공한 경우 취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유리할 전망이다. 또한 국제출원과 섭외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경우도 취업이나 보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국제간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주목을 받음에 따라 변리사의 역할은 점차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부존자원이 적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제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되며, 제품 수출 시에는 반드시 지적재산권 문제를 고려해야하는 국제현실도 변리사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국내 최초의 특별법원이며,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1998년 3월1일에 설치됨으로 인한 특허전담판사, 기술판사, 기술심리관등의 인력충당문제와 1994년부터 모집된 특허법무대학원생들을 교수할 특허전문가가 절대 부족한 점, 1998년에 설립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담당할 심판관, 상임, 비상임 심판관의 충원문제와 현재 매년 약 110만건의 특허청 출원에 따른 특허대량지체현상 개선책으로 현 특허청 심사관의 상당부분을 시험출신의 변리사로 교체하려는 안이 교섭되고 있다.

UR체결에 따른 정부의 지적재산권분야 지원육성책으로 국내의 지적재산권 전문연구기관 설립추진과 이를 담당할 전문연구원 문제, 전국에 특허전담부서가 있는 약752개 기업의 특허전문가 입지와 초빙문제, 전국 대학의 지적재산권법 강의개설에 따른 교수 확보가 부족하다는 점 등 종전보다 변리사의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볼 때 변리사의 전망은 자명해진다.

변리사 시험 공고

2. 변리사시험공고

변리사를 선발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시험이다. 1차(시험일 : 2월말), 2차(시험일 : 7월말)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2차시험은 논술 시험이다.

특허청장이 실시하며(변리사법 제4조의2 제1항) 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시행업무 전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한다.

특허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부 또는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2차 시험까지 최종합격자로서 연수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 자격을 손에 넣을 수 있다

2-1. 변리사 시험과목

1차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70분	산업재산권법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40문항 (특허 20, 상표 10,디보 10)	100점
2교시	70분	민법개론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	40문항	100점
3교시	60분	자연과학개론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40문항(과목별 10문항)	100점

영어는 시험 자격요건의 형태로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ELTS가 인정되며, 커트라인은 TOEIC 기준 775점. 폐지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의 비장애인 기준 요건인 TOEIC 700점(청각장애인 350점)에 비하면 높은 편인데 이는 국제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지식재산권의 특성 상 높은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응시한 시험도 인정하나, TOEIC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 치른 정기시험의 성적표만 인정된다. 만약 TOEIC을 일본에서 치렀다면 성적조회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3과목은 객관식 5지 택일형이며 300점 만점에서 과락자를 제외하고 합격을 결정한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1차 시험의 선발 인원은 최소 합격인원수의 3배수(600명)인데,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들 중 600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맞은 자까지 합격한다. 600등동점자가 많다면 600명보다 합격인원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600명을 하한으로 하며 650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1차 시험 합격시 다음 년도의 1차 시험은 면제된다. 즉, 1차를 한 번 붙어 놓으면 2차는 붙은 해와 그 다음 해까지 2차 응시 기회가 2번 주어진다.

1차 시험의 경쟁률은 6:1 정도이다. (대개 3500명 안팎이 응시하여 600명 안팎이 붙는다.)

변리사 시험 공고

2차

일차	교시	시험시간	과목	문항 수	배점
1일차	1교시	120분	특허법	대문제 4문항	100점
	2교시	120분	상표법	대문제 4문항	100점
2일차	1교시	120분	민사소송법	대문제 4문항	100점
	2교시	120분	선택과목(택1)	대문제 4문항	100점(50점 이상 p/f)

2차 시험은 7월 말에 서울에서 금/토 2일간 치러진다. 필수과목 3과목(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과 선택과목 1과목의 조합으로 치러진다. 필수과목은 100점 만점, 선택과목은 50점을 기준으로 Pass/Fail을 결정하고 총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합격자 결정은 선택과목을 50점 이상 넘고 필수과목 과락을 면한 자들중 3과목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합격시키되,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인 200명에 미달하면 60점을 못 넘었어도 200등 안에는 든 사람들까지 최종합격범위 안에 포함된다.

실질적으로는 200명 정원의 상대평가이다. 왜냐하면 항상 커트라인이 60점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차 시험의 점수는 상대평가에 걸맞게 조절한다. 평균점수는 대체로 45~50점 정도. 합격점수는 56~60점 정도로 조절한다. 수석은 해마다 다르나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 초반 정도에서 형성된다.

* 선택과목

분야	과목	분야	과목
인문사회	저작권법	화학·생물·약품	약제학
	산업디자인		약품제조화학
	디자인보호법		발효공학
기계·금속	기계설계		유기화학
	금속재료		분자생물학
	열역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전자	회로이론		섬유재료학
	전기자기학	기계·전자·화학	제어공학
	반도체공학	컴퓨터	데이터구조론
건축·토목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공학		

변리사 시험 공고

* 선택과목 선택자 응시현황

분야	과목	2차 응시자수	PASS자(50점 이상)	합격자
인문·사회	디자인보호법	542	450	115
	저작권법	191	122	38
기계·금속	열역학	65	34	127
기계·전자·화학	제어공학	20	19	3
전기·전자	회로이론	84	79	15
컴퓨터	데이터구조론	12	11	3
화학·생물·약품	유기화학	44	33	7
	화학반응공학	55	45	13
	분자생물학	30	28	3

1차시험 공부방법

3. 1차시험 공부방법

3-1. 변리사 1차 민법개론 공부방법론 _ 변리사스쿨 민법 전임 류호권

Ⅰ. 민법의 특성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데 까지는 통상 빠르면 2개월 에서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강의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실하게 준비하여 성공한 수험생의 케이스인 것이고, 오히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선택한 교재를 읽어나감에 있어서 그 방대한 양에 압도당하여 지엽적인 부분에 몰두하면서 민법 전체의 맥을 놓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민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중 재산법은 크게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의 4대 목차로 분류되고, 통상적으로 이 순서대로 학습하게 되는데 문제는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즉 뒤의 내용을 알아야 앞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처음 민법을 시작할 때는 뒤의 내용을 모른 채 앞의 내용을 배워야 하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컨대 대입 수학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총 12년을 단계별로 학습하는데 비하여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내용이 모두 섞여 있고, 변리사 시험은 1년에 1회 시험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이를 정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민법은 각 단원 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의 내용을 알아야 앞의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민법은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여 처음 입문하여 한 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므로 뒷부분 공부할 때 쯤 앞부분이 기억이 희미해져서 결국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할까?> 위와 같은 민법의 특성 때문에 민법은 절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을 처음 시작하면서 민법총칙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를 반복해서는 절대로 민법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되어야 그 때부터 실력이 향상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의 대부분의 수험 학원에서 민법 강의의 사이클은 1년을 기준으로 최소한 4회독(기본강의-중급강의-객관식강의-최종정리강의)이상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커리큘럼은 학원의 십 수 년 이상의 경험에서 나온 산물인 것입니다.

1차시험 공부방법

Ⅱ.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민법에서 고득점해야 1차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을 정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닉하게도 1차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자연과학이 4과목으로 세분되고 전공분야가 아니면 점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잃은 점수를 민법에서 만회해야 하고, 민법은 한 과목에 만 100점이 배점되어 있고 또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과목도 또한 민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법에서 고득점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다는것입니다.

<민법에서 고득점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1. 이해와 암기의 반복(암기의 중요성)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법학은 특히 이해가 중요합니다. 필자가 처음 법대에 들어갔을 때에도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민법은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여 암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면 암기의 양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암기를 경시해서는 절대 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은 5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으로 치루어지는데, 이해만 가지고는 실제 시험에서 지문의 ○×를 정확히 판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 위주의 공부만으로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점수는 안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민법지식에도 단계가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위 개념이나 응용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수험생들은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판례를 하나 만나면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고 넘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판례가 이해될 때까지 파고드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진입하는 순간부터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에게는 사치입니다. 오히려 암기를 열심히 하다보면 외웠던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만나 민법의 앞과 뒤가 연결이 되면서 민법 전체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지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를 반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되고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선이해 후암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선암기 후이해"의 방법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차시험 공부방법

2.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리사 1차 시험은 5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으로 치루어지므로 객관식 문제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하여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특히 처음 민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데 이미 기출된 문제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으므로 공부의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배우거나 기본서에서 읽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출된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보게 됨으로써 머릿속에 중요한 내용을 각인시켜 준다는 점 등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강의부터 변리사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그날 진도 나간 부분 문제를 풀어오시면 다음 수업시간 시작할 때 약 30분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러한 방식은 이미 제 강의를 수강한 수험생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의 수강 여부를 떠나 "처음 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 풀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모르더라도 반드시 처음부터 변리사 기출문제 5년 치 정도는 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강의 수강 → ②기본서 정독 → ③객관식 문제 풀이"의 순서로 계속 반복하여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민법 전체를 3번 쯤 반복하고 나면 민법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은 최소한 11월까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시험이 통상적으로 2월 셋째 주쯤 치러지므로 12월부터 시험까지 약 80일 정도가 남는데 그 80일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여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3. 조문의 중요성

민법 시험문제는 크게 조문, 판례(누적된 대법원의 판결들을 말함), 이론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제비중으로 보면 판례(약 70%) > 조문(약 25%) > 이론(약 5%미만)의 순서가 되는데,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보니 많은 수험생들이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고 조문은 경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라는 것이 결국은 조문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석하거나 조문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어서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맞추다보니 결국 조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문을 공부하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을 대하는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민법 기본서 안에는 조문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풀때나 조문이 나오면 조문집을 열고 찾아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조문집을 나누어 드리지만,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민법 조문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여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1차시험 공부방법

저는 수업시간에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의미는 조문은 단순히 글로 적혀 있지만 국어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되고,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및 관련 판례, 기출지문 등을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문과 판례, 기본서와 객관식문제집을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며 수시로 보는 태도만 기르셔도 성공이라 할 것입니다.

4. 교재의 선택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이미 수험생들의 선택을 받아 검증이 된 교재라면 어느 교재를 기본서 또는 문제집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저명 교수님의 저서는 학술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교과서이지만 분량이 수험서의 2배에 육박하고 1차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이론적인 학설 대립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라면 기본서는 수험서 중에서 선택하고 교수님의 저서는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5. 복습의 중요성 : 學習에서 學(배울 학)보다 習(익힐 습)이 중요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도 모르겠다는 수험생들을 많이 봅니다. 강의에 서는 강사가 왜 그런지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때문에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저는 수업을 조문 읽기 → 기본서 설명(필기 포함) → OX지문풀이의 순서로 진행하는데, 수험생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도 조문 먼저 읽고 기본서 정독하고 필기노트의 도해도 스스로 그려보고 OX지문까지 풀어보는 일련의 과정을 매일매일 꾸준히 밀리지 않고 해내셔야 합니다. 배우고 나서 익히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 공부할 분량의 조절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의 때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이지만 기본기와 절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민법을 수험서나 객관식 문제집을 통하여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는 그야말로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을 추려낸 민법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추려진 분량만 해도 1년 안에 다른 과목과 함께 습득하기에 벅찬 분량입니다. 그런데 실제 민법은 이보다도 훨씬 방대합니다. 민법 공부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넓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또한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이런 지문들까지 모두 커버한답시고 내가 보는 교재에 혹시 빠져있는 판례가 있는지,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더 있지는 않은지 불안해하면서 책에도 없는 판례를 찾아가며 공부의 양을 늘리기 시작하면 불합격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1차시험 공부방법

수험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맞아야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남들 못 맞추는 문제 하나 더 맞으려다 남들 다 맞는 문제 두 문제를 틀려버리는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만큼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을 잘 억제하고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하여 딱 그만큼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판례들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III. 마치며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글의 가장 주된 독자가 될 텐데, 처음에는 아마 읽으셔도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고, 수험생활 내내 이 가이드를 옆에 두시고 민법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 글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의 관문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진입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합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되어야만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의 이 길고도 지루한 잔소리가 여러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수험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차시험 공부방법

3-2. 변리사 1차 화학 고득점을 위해 피해야 하는 공부법 _ 변리사스쿨 화학 전임 김선민

들어가며

변리사스쿨 화학 전임 김선민입니다.

변리사 1차 시험 화학 공부에 있어서 고득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흔한 공부방법에 대한 일반론을 피력할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피해야 하는 공부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수험생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만약 1번 이상 변리사 시험을 치루어본 수험생께서 화학에서 7개 미만으로 득점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잘못된 공부방법 중 어느 하나에는 반드시 해당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시험을 처음 치루려는 초시생이나 시험을 몇 번 치루어본 재시생들께서 이 잘못된 방법을 피하시어 변리사 1차 화학에서 최소 7개 이상의 고득점을 받아 변리사 1차 시험을 너끈히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 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잘 읽어주시고 향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 화학 공부를 하지 않거나 가장 적게 한다.

1. 화학을 늦게 시작한다.

화학 베이스가 전혀 없는 학생이 화학 공부를 가장 적게 합니다. 화학은 자연과학 4과목 중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과목이므로 가장 빨리 시작함이 당연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함이 당연한데도 공부를 해도 소용없다는 잘못된 말들이 만연하여 가장 공부를 늦게 시작하고 가장 공부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요행으로 4-5개만 어떻게 맞추면 되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과목은 화학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화학을 전공해도 5개 정도밖에 못맞춘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농간질에 속는다.

간혹 글들을 보면 화학 전공자가 59회 기출문제에서 5개도 못맞추었으므로 화학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은 공부를 해봐야 문제를 맞출 수 없으니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식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들은바에 의하면 그런 말들을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며 자기가 화학 공부를 하기 싫거나 혹은 자기가 화학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았으니 다른 이들도 그럴 것이라는 일반론을 일반화시켜 타인의 공부에 무책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몹쓸 사람의 행동입니다. 현재의 변리사 1차 시험에서는 자연과학 과목 중 어느 한 과목을 포기하면 1차 합격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모든 과목은 노력한만큼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화학이 쉽지는 않은 과목이나 끝까지 노력하시는 성의를 스스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 강의를 들을려면 빠지지 말고 들어야 한다. 인강은 진도가 밀리지 않아야 한다.

오랜 학원 선생으로서의 경험을 말씀드려보자면 수험생들 중 학원 강의를 습관적으로 중간에 한번씩은 빼먹으면서 진행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화학의 진도에서 밀리게 될 뿐 아니라 내용상 연결점을 놓치기 쉬워 다음 강의부터는 흥미를 잃게 됩니다. 또한 인강생들은 학원에서 진행하는 진도에 맞추어 진도가 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강은 진도가 밀리기 쉽고 그 진도가 밀리기 시작하면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갈수록 공부량이 많아졌을 때 따라가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독학으로 변리사 화학 공부는 가능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독학으로서 변리사 화학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변리사 시험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에서 시간을 할애하여 시간 낭비를 할 수 있고 학원 강의를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강의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화학 공부를 더 많이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5.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기도 하고 너무 자신의 고집만 고수하려고 한다.

귀가 지나치게 얇아서 다른 수험생이 이 교재가 좋다, 이 강의가 좋다, 이 문제가 좋다는 말을 들으면 그 교재로 바꾸고, 그 강의로 바꾸고 그 문제로 바꾸어 한 권의 교재를 10번 반복하여 내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수험생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반대로 너무 귀가 두꺼워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공부시간을 늘려가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잃는 수험생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2) 화학 공부를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다.

1. 내용을 아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정확한 암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시험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험공부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공부를 말합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면 시험장의 긴장감 속에서도 실수 없이 빠르게 그 내용을 끄집어내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는 이해된 내용이 철저하게 암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수험생들이 범하는 큰 오류 중 하나가 이해만 하고 암기하려고 노력은 게을리하는 데 있습니다. 즉 수험생들이 화학 공부를 하는 목적은 오직 시험을 치르기 위함인 것이지 학문적인 지식을 배양하기 위함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험은 얼마나 빠르게 자신의 지식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어 문제에 적용하는가가 관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차시험 공부방법

2. 과도한 공부 또는 과소한 공부는 시험을 망칠 수 있다.

화학 관련 전공하신분들이 화학에서 고득점을 받는데 실패하셨다면 이는 과도한 공부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변리사 수준에 맞는 화학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함에도 변리사보다 난이도가 월등 높은 미트디트피트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려고 노력하셨거나 시중의 문제집도 몇권을 풀려고 노력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오류는 미트디트피트를 공부하다가 변리사 시험으로 진로를 바꾼 수험생들은 쉽게 범하게 되는 오류일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공부로써 고득점에 방해를 줄 뿐 아니라 변리사 1차에서 10문제의 비중밖에 없는 화학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타 과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화학 관련 전공자께서 고득점을 받는데 실패하신 원인 중 또 다른 하나는 과소한 공부를 하였을 것입니다. 화학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는 건방진 착각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반복 숙달하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3.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거나 별로 중요치 않은 개념과 문제에 집착한다.

학원 강의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나오거나 혹은 인강을 듣는 수험생들 중 일부는 수업시간에 꾸벅꾸벅 졸음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수업시간에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밑줄만 긋고 나중에 암기해야지 하는 좋지 않은 마인드로 수업을 듣고 있거나 수업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듣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쓸데없는 내용과 문제에 집착하여 진짜로 중요한 내용과 문제는 오히려 망각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글을 읽으셨다면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합니다.

4. 기출문제 해설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은 공부를 안하느니만 못하다.

기출문제는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은 그 기출문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기출문제를 통해서 향후 기출문제의 수준을 예상할 수 있기때문에 중요합니다. 즉 과거 기출문제 중 일부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일부 잘못된 공부 마인드를 가진 수험생들은 그런 문제를 그냥 암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똑같은 과거 기출문제가 출제되지 않음이 자명한데 그런 문제를 그냥 암기하는 공부는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한 기출문제가 풀리지 않으니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암기하는 방법을 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단순 암기는 학생들이 상당히 자주 저지르게 되는 실수이며 일부 몰지각한 학원이나 강사들은 이런 학생들의 궁박한 마음을 악용하는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화학 공부는 글씨가 똑같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여 화합물 혹은 공식에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화학입니다. 따라서 과거 기출문제를 교재에 그대로 실어놓고 원래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강의하고 학생들에게 과거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숙달시키도록 강의하는 강사가 있다면 학생들의 공부를 망치는 1순위 강사일 것입니다.(실제 미트디트피트 시험에서 그런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수험생들은 그런 강사를 선별하거나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 시험공부를 몇년씩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을 자료만 모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일부 수험생들은 자료를 모으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과목이라면 판례모음 같은 것들, 자연과학 과목이라면 해당하는 문제나 혹은 요약정리집등 이런 자료를 모으는데에만 열심인 수험생이 간혹 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정리되지도 않을 자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료가 내 머리에 저장되지는 않음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그 자료를 내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자료를 파일로 잘 묶어놓는 행동입니까?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6. 못푸는 문제 몇 문제에 연연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기 일쑤이다.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화학 문제는 화학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만 해결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어느 특정 부분만 안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닌 전반적이고 입체적인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고 이런 문제를 공부하는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수험생들께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특히 과거 기출문제)한 두 문제에 연연하여 전반적인 맥락을 잡는 공부는 게을리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깔끔하게 버릴 줄도 아는 여유가 필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7. 이해가 가지 않는 강의를 참고 듣고 있다.

단지 화학 공부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과목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학원 강의에서 강사의 전달력 부족이던, 자료 부족이던, 혹은 그 역량이 부족한 강사나 학원이 헛소문 유발(인터넷 언플짓 등)의 속임수에 속았던간에 학원 강의를 듣는데 본인은 정말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고 있으며, 또 이 강사가 왜 유명한 강사인지 고개가 갸우뚱 거려지는데 남들은 좋다고들 이야기하니 끝까지 참고 들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라는 희망으로 끝까지 강의를 참고 듣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이나 강사의 속임수에 자신의 인생이 달린 시험을 거시겠습니까? 학원 선생의 강의는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학원 강의입니다. 본인이 들을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들을려고 노력하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 학원이나 강사는 빨리 환불받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8. 강의에서 암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학원 강의는 듣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을 절약하고 그 내용이 이해를 넘어 암기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과목 공부에 흥미가 생기며 효율이 높아져 실제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냥 강의를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되도록 암기까지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만약 암기까지 되지 않았다면 강의를 듣고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는 빠른 시간내에 반드시 정리하여 내것으로 만들어 놓고 진행해야 합니다.

1차시험 공부방법

(3) 시험장에서까지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1.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는 순간 푸는 방법이 튀어나오지 않는데도 그 문제에 시간을 쓴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그 문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을 직감했음에도 바로 넘기지 못하고 그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풀어보려고 애쓴다면 좋은 결과를 받기 힘듭니다. 그런 문제는 바로 넘겨서 일단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시간이 남았을 때 차분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바로 넘기는 습관을 모의고사 같은 데서 연습해보아야 하며 바로 넘길 줄 아는 지혜로운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2. 응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내용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화학 문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내용을 이해하여 응용력을 갖추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내용을 암기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문제가 내용을 알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응용력은 배양하기 쉽지 않으며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는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많으므로 시험장에서 풀어내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용을 잘 암기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보는 순간 찍어낼 수 있으므로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찍을때에는 한줄로 찍어야 한다.

주어진 시험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나 혹은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며 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찍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찍으면서도 욕심을 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듯 합니다. 분명 찍는 것은 그냥 확률일 뿐인데 그 찍으면서도 다 맞았으면하는 욕심을 내면서 이리저리 찍게 되는 것입니다. 찍을때에는 그냥 한 번호로 쭉 내려 긁어야 5지선다 이므로 20%의 확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찍어서 찍은 문제가 모두 틀리는 오류는 시험은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4) 화학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팁

1. 화학에 전혀 베이스가 없어서 공부 자체가 두렵거나 하기 싫으십니까?

화학 공부가 두려우십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너무 싫으십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단원을 찍어드릴 것입니다. 그 단원만이라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화학 전체의 내용을 100이라고 본다면 제가 찍어드리는 부분은 3-4정도의 내용입니다. 그 정도는 철저하게 암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부분만은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5개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1차시험 공부방법

2. 암기형 단원을 찍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은 응용력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내용을 암기하기만 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학 노베이스 수험생들께서 정말 화학 공부가 싫으셔서 화학 공부를 하면 오히려 다른 과목도 공부하기 싫어지는 무리가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찍어드리는 이 부분만 철저하게 공부하십시오

단, 2023년도 9월까지는 이 부분만 하진 마시고 전반적인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하시다가 10월이 넘었음에도 화학이 너무 싫으시다면 이 부분만 철저하게 내용 정리하시고 기출도 풀어보십시오

원소의 주기적 성질 : 유효핵전하, 원자반지름, 이온화에너지, 전자친화도 등
양자론과 원자구조 : 보어의 모델, 1-30번까지의 전자배치와 자기적 성질
공유결합의 일반이론과 구체적인 화합물들의 루이스구조, 형식전하, VSEPR, 혼성오비탈
MOT(분자궤도함수 이론, HF, OH화합물도 포함)
이온결합에서 본-하버 싸이클
열화학 : 표준생성열, 결합해리에너지를 이용한 표준엔탈피 구하기등
열역학 제2법칙과 깁스함수관련 내용
산염기 중 약산, 약염기의 pH구하기, 완충용액관련 내용
용해평형
전기화학
배위화학
유기화학, 고분자, 분광학

이상 오랜기간동안 학원 선생으로서 수많은 합격자와 수많은 불합격자를 보아왔고 그 합격자의 마인드에 감탄했으며 그 불합격자의 마인드에 안타까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수험생께서 다가오는 변리사 1차 시험 아니 최종 시험에서 꼭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차시험 공부방법

3-3. 변리사 1차 생물 영역별 학습방법 _ 변리사스쿨 생물 전임 김민

1. 개요

생물은 영역별로 빈출영역과, 출제빈도가 낮은 영역, 출제되지 않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앞의 기출문제 분류 테이블에서 'Category 2. 효소' 등은 실제 최근 15년간 한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역별로 다른 집중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생물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동일한 집중도로 학습하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즉 일률적인 집중도로 공부하게 되면 학습량이 수험기간 내에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을 훨씬 상회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의 기출분류 테이블과 해설을 참조하셔서 영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영역별 집중도로 학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출분류 테이블 전체에서 한가지 특이사항은 특정 연도의 경우 일부 영역에서 다수의 문제가 몰아서 출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5년 'Category 6(유전 물질의 구조~유전자 발현의 조절)'에서 4문제 출제, 2017년 'Category 11'의 '진화의 원리와 종분화'에서 3문제 출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영역간 배분이 적절치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 생물 영역별 학습방법

Category 1 : 생물의 특성 ~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기출 횟수도 좀 되지만, 생물학의 기초 개념과 용어들을 학습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까지는 꼼꼼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이후의 영역들을 학습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므로 필수적인 학습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소홀히 하면 실제 시험에서 용어를 이해 못해서 지문을 해석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래 3년간(2020년~2022년) 세균에 관련된 문제 5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 11년간은 세균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이례적인 출제 경향입니다. 세균도 생물학에서 중요도가 있지만, 3년에 5문제 출제는 일상적인 출제 경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2 : 효소

최근 15년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효소는 생물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산업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언젠가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고 효소 관련 특허들도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변리사 시험 생물에서는 출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향후 출제시에는 일단은 효소의 깊은 이론보다는 기초적인 이론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효소의 기초이론만 학습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Category 3 : 세포의 물질대사와 에너지 ~ 광합성과 세포 호흡의 비교

대표적인 빈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이론 자체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들의 난이도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또한 이 영역은 기출문제에서 유사한 지문이 반복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기본개념 위주의 반복학습으로 좋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꼭 득점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1차시험 공부방법

Category 4 : 유전자와 염색체(체세포분열) ~ 생식세포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감수분열)

역시 대표적인 빈출 영역입니다. 이 영역도 이론 자체는 어렵지만 기출문제들의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역시 기출문제에서 유사한 지문이 반복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영역도 기본개념 위주의 반복학습으로 좋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꼭 득점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Category 5 : 사람의 유전 현상(멘델 유전학) ~ 사람의 유전병(돌연변이)

빈출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문제와 유사한 논리추론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영역의 기출문제 중에는 쉬운 문제와 극히 어려운 문제가 같이 공존합니다. 유전학의 극히 어려운 문제는 실전에서 맞출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유전학 문제 중 쉬운 문제에만 집중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대비할 수 있는 테마에는 'ABO 혈액형', '검정교배', '자가교배' 등의 쉬운 문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교차(연관과 교차)'는 주로 쉬운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이론만 학습하면 되고 꼭 맞추어야 하는 테마입니다. 15년간 3회나 출제되었기 때문에 출제빈도가 아주 높은 테마가 되었습니다. 돌연변이는 거의 출제되지 않다가 2018년에 최초로 쉬운 문제가 출제되었고, 2019년에 난이도가 꽤 있는 '점돌연변이'가 출제되었습니다. 돌연변이는 향후에도 적정한 빈도로 출제가 가능하다고 예상됩니다. 기본이론을 잘 정리하면 맞출 수 있는 테마입니다. 돌연변이에서는 이후 '해독틀이동 돌연변이(Frame Shift Mutation)'이 본격적으로 출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ategory 6 : 유전 물질의 구조 ~ 유전자 발현의 조절

대표적인 빈출 영역입니다. 위의 'Category 3 및 4'와 출제경향이 유사합니다. 'Category 3 및 4' 보다는 약간 어려운 지문들이 일부 출제되었으나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기본개념과 약간 깊이가 있는 이론 위주로 반복학습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꼭 득점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Category 7 : 생명 공학 기술 ~ 생명 공학 기술의 활용과 전망

'0.7문제/1년' 정도의 빈도로 출제되었습니다. 확실한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분자생물학 테크닉(연구기법)위주의 내용으로 실제 실험 경험이 없는 비전공자의 입장에서는 강의나 교재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범위도 넓어서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연구기법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출문제에서의 핵심 연구기법은 DNA 재조합(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 유전자의 발현 등, 2회 기출됨),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2.5회 기출됨), 전기영동과 Blotting (3회 기출됨), Microchip (Microarray, 1회 기출됨)의 4개 정도입니다. 그러나 '서열분석'도 0.5회 기출되었으며 되었으며, '차세대 서열분석'도 향후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 '줄기세포',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편집)'도 출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이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동영상 등 Multimedia 학습이 추가되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CRISPR-Cas9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었는데 2023년에 출제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CRISPR-Cas9'과 '차세대 서열분석'은 시사성테마 무료특강으로 제공되니 꼭 수강하시기를 권합니다.

Category 8 : 인체 생리학

인체 생리학 전체에서는 일반적으로 '2문제/Year'가 출제 되었습니다 내분비계, 순환계, 면역계, 소화계 순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생리학 이론은 일반적으로 어렵고 범위가 넓습니다. 이에 비해 기출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출제 패턴의 규칙성이 없고 향후 출제 경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무조건 좋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인체 생리학은 범위가 너무 넓고, 향후 출제되기 좋은 테마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체 생리학을 적정 시간내에 완벽하게 커버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들도 출제되었지만, 일부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출제되었습니다. 생리학의 각 세부영역(ex. 내분비계, 순환계, 면역계, 소화계 …)별로 기본이론에만 집중하고, 기출된 테마들을 중심으로 쉬운 문제들에 대비하여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입니다. 인체 생리학은 생물학 영역 중에서 많은 시간을 투입해도 시간효율성이 높지 않은 영역입니다.

내분비계에서는 15년간 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 '티록신'과 '인슐린(또는 1형 당뇨병)'이 각 2회씩 기출되어 변시 생물에서는 중요도가 높습니다. 순환계에서는 생리학 중 비교적 쉬운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15년간 5문제 출제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소화계도 '지방의 소화' 2회, '쓸개즙' 1회가 출제되었으며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면역계는 5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면역계의 넓은 영역 중 유독 '면역세포의 종류'와 '항체의 종류' 부분에서만 주로 문제가 출제되어 출제의 편향성이 아주 높다고 보입니다.

Category 9 : 생명의 기원 ~ 생물의 분류

분류학의 기본 이론을 설명하는 영역이다. 기출 문제가 거의 없었으나 2021년에 '계통수 분석' 1문제만 출제되었고 아주 쉬운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론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으며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가볍게 커버하시면 됩니다.

Category 10 : 생물의 다양성

3역6계에 따른 분류학의 실제 내용입니다. 15년간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3문제는 '고세균' 중심의 '진정세균/진핵세포/고세균 비교' 문제로서 유사한 내용이 반복 출제되었습니다. '고세균'은 한동안은 생물학계에서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는 중요 이슈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2문제는 2015년의 '동물 계통수'와 2023년의 '동물 분류학'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1문제는 2022년의 '식물의 분류'로서 오랫동안 출제되지 않던 내용이 갑자기 출제되었습니다.

분류학 일반은 출제빈도도 낮고 향후 출제경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분류학의 기본 이론에만 집중하고 쉬운 문제만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류학의 세부 내용(원생생물계의 분류, 균계의 분류, 식물계의 분류, 동물계의 분류 등의 세부 내용)들은 범위가 넓어서 완벽히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어적으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세균(즉, 진정세균/진핵세포/고세균 비교)' 문제는 향후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론이 어렵지 않으며 출제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맞추어야 하는 테마입니다.

1차시험 공부방법

Category 11 : 진화의 증거 ~ 진화의 원리와 종분화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뒤의 'Category 12'과 함께 생물학에서 가장 점수를 얻기 쉬운 영역입니다. 15년간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학습분량은 작은데 기출이 많이 되었으며 난이도가 낮습니다. 이론도 어렵지 않으며 시간투입 대입 효율이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 비전공자도 이해가 용이하므로 꼭 잡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유전적 부동'은 난이도가 낮으며 내용이 많지 않음에도 3문제나 출제되어, 출제빈도가 극히 높은 테마가 되었습니다. '자연선택'도 난이도가 낮은데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Hardy-Weinberg 평형'도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가 낮으면서 계산도 쉽습니다. 이 3가지 테마는 이론도 쉽고 출제되는 문제도 쉽기 때문에 무조건 정복해야하는 테마입니다.

Category 12 : 생물과 환경의 상호 작용 ~ 생물 다양성 보전

과거에는 빈출 영역이었고 쉬운 문제들만 출제되었으나, 최근에는 출제를 하지 않거나 까다로운 테마를 찾아서 출제하는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Category 11'과 함께 생물학에서 가장 쉬운 문제들이 출제되어 점수를 얻기 좋은 영역이었습니다. 수험생의 평균 득점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이후에는 경향이 완전히 바뀌어 까다롭거나 지엽적인 테마를 찾아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니 경향성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12'의 전체 영역에서 15년간 14문제 출제되었습니다. 2016년 이전의 문제들은 학습분량이 작은데 출제가 많이 되었으며 난이도가 낮습니다. 소수의 비전형적인 문제들도 출제되었으나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주 쉬웠습니다. 이론 자체도 쉽고 투입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영역이며, 비전공자도 이해가 용이한 영역입니다. 'Category 11'과 'Category 12'에 한정해서는 기출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이후 문제들은 그 이전의 기출문제와는 다른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2019년, 2020년의 '질소순환'과 2019년의 '우점식물'의 3문제입니다. '질소순환'은 이 영역(생태학)에서는 약간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우점식물'은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Category 13 : "시사성 테마"

'시사성 테마'는 최근 생물학의 시사적인 상황에 따라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테마들을 의미합니다. 일부의 시사성테마는 기본교재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시사성 테마'는 기본교재에 없는 내용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시사성 테마'는 적은 학습 시간을 투입하고도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전공자의 입장에서도 득점 가능 영역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Apoptosis (세포사멸), miRNA 및 siRNA (마이크로 RNA 및 small interfering RNA, 발현조절 연구 관련), AI 바이러스 (조류독감 바이러스), 대장균/O157 (햄버거병 관련), Prion (프리온, 광우병 관련), 고세균, CRISPR-Cas9 유전자편집 등이 기존에 출제되었습니다. '고세균'은 생물학 분류체계를 '5계'에서 '3역6계'로 바꿀 만큼 생물학에 큰 영향을 미친 연구성과들이라서 시사성 테마이기도 하고, 중요도가 아주 높아서 현재는 모든 기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시험 공부방법

2021년에는 'RT-PCR/코로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RT-PCR 기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Covid 19(질병명)' 또는 'SARS-CoV-2(Covid 19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에 관련된 내용이 다시 출제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판단됩니다.

CRISPR-Cas9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었는데 2023년에 출제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CRISPR-Cas9'과 '차세대 서열분석'은 시사성테마 무료특강으로 제공되니 꼭 수강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리학, 화학 등은 많이 성숙된 학문이기 때문에, 현재는 큰 학술적인 발견이 새롭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생물학은 분자생물학 등의 발달로 최근 수십년간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은 현재도 학술적인 중요도가 높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됩니다. 따라서 생물 시험에서는 시사성 테마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는 1) 노벨상 수준의 연구성과, 2) 위험한 질병의 출현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의 1) 노벨상 수준의 연구성과에는 크리스퍼 가위(CRISPR-Cas9, 유전자 편집 관련), 차세대 서열분석 등이 현재로서는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출제 문제 중에는 '세포사멸', '마이크로RNA', 'siRNA'가 이 범주에 해당됩니다. 2) 위험한 질병의 출현에는 HIV (AIDS 유발 바이러스), 신종플루, 코로나 바이러스 (SARS, MERS, Covid 19의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의 일반이론 등의 출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류독감', 'O157', '프리온(광우병 관련)'은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약개발 분야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분야인 바이오시밀러의 일반이론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테마인 '고세균'과 '남세균(=남조류=광합성세균=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의 경우는 연구성과 발표 당시에는 시사성 테마였습니다. 그러나, 중요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현재는 빈출 테마이며, 기본서에도 내용이 포함되고, 향후에도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사성 테마는 해당 테마에 대해 한정된 기본이론만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입시간 대비 효율이 높은 영역입니다. 다만 어떤 시사성 테마가 출제 가능한지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며, 해당 테마별 좁은 영역의 기본이론 숙지가 효율적인 대비 방법입니다.

합격수기

4. 합격수기

4-1. [제60회 변리사 시험합격] 2차 시험 합격수기 김건호 - [디자인보호법 선택 [2차종합반][기득합격]

1. 들어가며

2020년 가을에 군대에서 시작했던 공부가 약 3년만에 끝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중 변리사님께서 수업 때 말씀하셨던, '합격날에는 기쁨보다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백번 공감했습니다.

2. 1차시험(과목별 공부방법)

산업재산권법 : 97.5점 / 민법개론 : 92.5점 / 자연과학개론 : 72.5점

2-1. 민법개론

1차 시험은 군대에서 시작했습니다. 민법은 류호권 교수님의 강의와 책을 병행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주중에는 오후 5시반부터 9시반까지 + 연등시간에 기본강의를 듣고, 주말에는 일요일에는 풋살을 하고 토요일에는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법 과목은 휘발성이 정말 강해서 복습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고, 오래 기억에 남게 되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복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처음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복습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간에 쫓겨 기본강의만 빨리 들으려 했지만, 시간이 많은 분들은 기본강의 빨리 듣는 것보다도 복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서로 복습을 한 후에는 류호권 교수님의 포인트민법 책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했습니다. 포인트민법책은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들이 난이도별로 정리되어 있어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는데에도 좋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가독성이 좋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2. 산업재산권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조현중 변리사님의 특허법 기본강의, 조문특강, 판례강의, 상표법 기본강의를 수강했는데, 저는 특허와 상표만큼은 강사님의 강의를 들은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중 변리사님 강의를 들으며 특허법을 전체적으로 개괄하고 차후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현중 변리사님의 조문특강을 추천드리는데, 조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비슷한 논점끼리 비교하며 공부할 수 있었고, 이 때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허법은 조현중 변리사님이 강조해주셨던 것처럼 조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문노트에 표시된 밑줄을 전부 암기용 펜으로 지우고 외웠으며, 추가적으로 매우 지엽적인 조문들도 제가 직접 밑줄을 긋고 외웠습니다. 실제로 59회 시험 역시 지엽적인 조문이 출제되었고, 이런 공부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표법은 판례를 위주로 공부하되, 33조·34조·90조·108조·119조와 같은 상표법 특유의 조문들은 전부 암기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의 차이점과 디자인보호법 특유 논점들을 위주로 특허법과 비교해가며 공부했습니다.

합격수기

2-3.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저는 전자공학과로 물리 베이스가 있어서 물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스타일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고, 화학/생물/지구과학은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물리 김현완 교수님의 책으로 공부했는데, 물리 10문제 전부 맞추는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리는 정확한 공식 암기와 문제 푸는 스킬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가지 문제풀이법(아이디어)을 숙지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화학 역시 마찬가지인데, 변리사시험에서 화학은 물리보다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물리보다도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학은 시간을 정해두시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 시험시간 60분 중 화학문제풀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20분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타이머로 시간을 재면서 시간을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구과학은 정확한 이론 이해와 암기만 있으면 충분히 10문제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2차시험(과목별 공부방법)

특허법 : 56.33점 상표법 : 56점 민사소송법 : 59.66점 디자인보호법 : 59.33점

3-1. 특허법

저는 종합반 출신으로, 조현중 변리사님의 실전 GS, 정진환, 박상보 변리사님의 GS를 수강했습니다. 특허법은 1차 시험에도 있는 과목이지만, 2차 시험에서의 특허법은 완전히 다른 과목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민특상 중 제일 어렵다고 평가받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특허법 고득점을 위해선 정확한 판례의 법리 암기 및 소위 조현중 변리사님이 말씀해주신 민법형 사례문제 풀기에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간의 사실관계가 누구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등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그것인데, 최근 변리사시험에서 매년 1문제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현중 변리사님께서 강의 때 말씀해주신 jhj공식을 애용했는데, 동차 시험 때 조현중변리사님 답안 스타일로 작성한 답안이 가장 고득점을 받아, 기득 때도 스타일을 유지했었고, 고득점의 비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2. 상표법

이성규 변리사님의 GS를 수강했습니다. 상표법은 가장 점수를 짜게 주는 과목으로 유명한데, 올해 시험에서는 채점 기준이 바뀌었는지 수험생 전체적으로 점수를 잘 주었습니다. 판례심화강의를 추천드리는데, 판례별 중요도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서 판례를 깊이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표법은 판례가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중요한 과목으로, 중요한 판례는 그 판례의 사실관계와 하급심 판례의 논점 역시 인지가 필요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데이터팩토리 판례가 출제되고, 심지어 그 하급심에서 논점이 되었던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저는 대비를 잘 한 덕분에 그 문제에서 고득점할 수 있었는데,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합격수기

3-3. 민사소송법

최영덕 박사님의 GS를 수강했습니다. 저는 동차 때 민사소송법 고득점을 받았었지만, 법에 대한 이해 없이 소위 말하는 GS답안 외워서 바르는 식으로 답안을 작성했기에 제가 고득점한 이유도 몰랐고 기득 공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최영덕 박사님의 GS를 수강하고 나니 답안지 쓰는 법에 대한 개념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1대1로 답안 첨삭을 꼼꼼히 해주시는데, 민사소송법 답안에 대한 안 좋은 습관을 고칠 수 있었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업 때 강조해주시면 교도소 판례가 올해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박사님 GS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어 잘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4. 선택과목

저는 전자공학과이지만 디자인보호법을 수강했는데, 1차 때 재밌게 배웠던 과목이라 2차 때 그대로 가져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1시간씩 디자인보호법 책을 암기했는데, 디자인보호법은 특허,상표와 답안 작성하는 스타일도 유사하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한다면 패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차,기득 때 모두 60점 정도의 점수를 받으며 여유롭게 패스했습니다.

4. 하루 학습 계획 및 생활 패턴

저는 하루에 7-8시간 정도 공부하고 시험 직전에는 10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공부시간 자체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 때 하루 공부시간을 조절해가면서 제게 가장 맞는 공부시간을 찾았는데요, 사람마다 정해진 공부량을 넘어서 하게 되면, 단기간 효과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슬럼프에 빠지거나 번아웃이 오게 되는 등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드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공부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9시 정도에 기상해서 오전에 2시간 정도 선택과목 및 기타 판례암기를 하였고, 오후 시간대에는 민사소송법을 공부했습니다. 기본서을 읽고 사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꾸준히 가졌습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특허와 상표를 격일로 공부했습니다. 특허는 기본서와 사례집을 위주로, 상표는 판례집과 사례집을 위주로 공부했고 중요 판례는 사실관계까지 전부 암기했습니다.

5. 수험생활 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방법

저는 멘탈 관리가 가장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이다 보니 준비기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해이해질 때도 있고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종합반 출신이다보니 그럴 때마다 변리사스쿨에 계신 변리사님과 상담을 했었는데요, 박상보 변리사님께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동기부여도 잘 해주셔서,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험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직에 계신 선배 변리사님들께 직접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6. 합격으로 이끈 나만의 학습전략 KEY POINT

'휴식시간을 확실하게 가져라'입니다. 많은 수험생 분들이 공부시간을 늘리기에만 급급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시간을 늘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오래 공부한만큼 실력이 느는 과목이 법 과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공부시간과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 시험에 진입했을 때는 '내가 쉬면 그 동안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13~15시간도 공부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저렇게 공부를 해나가도 지치지 않는 분들은 괜찮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장기간 레이스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위와 같이 공부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몇주동안 책을 한번도 피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소중한 시간을 잃으며 깨달았습니다.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험성 여러분도 반드시 휴식시간을 확실하게 가지면서, 오랫동안 꾸준히, 일정하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7. 2차종합반 커리큘럼의 장점

첫번째로 저희 학교에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 함께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선후배들을 많이 알지 못해 정보 공유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반에서는 조를 편성하여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어서, 이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터디를 할 때에도, 정보 공유를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두번째로 교수님 초청 특강입니다. 현직 로스쿨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답안지 작성 및 공부방법에 대한 특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실제 출제,채점위원으로 계셨던 분들이라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 과목 답안지 작성에 대해 틀을 잡을 수 있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직 변리사님들과의 상담이 가능하는 것입니다. 상기했듯이 저는 수험생활 도중 여러 슬럼프를 겪었는데, 그때마다 직접 조언해주시고 맛있는 밥도 사주셔서 수험생활을 끝까지 완주하는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8. 마치며

조현중 변리사님, 최영덕 박사님께 특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꼭 포기하시지 마시고 정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니,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수기

4-2. [제60회 변리사 시험합격] 2차 시험 합격수기 홍유연 - 저작권법 선택 [1차종합반, 동차종합반][동차합격]

1. 들어가며

(1) 인사말

안녕하세요. 60회 변리사시험 동차로 합격한 홍유연입니다. 발표일에 전공시험 준비하면서합격 확인을 했었고 커트라인 점수로 합격해서 놀라웠습니다.

1차를 두번 보고 두번째 일차 준비 기간동안 2차공부를 미리 선행하지 않아 동차 수험기간에 합격수기를 계속 읽으면서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제 수기를 읽을 수험생분께 도움이 될 공부방향 제시보다는 제가 했던 공부방법을 또하나의 선택지로서 고려해보는 내용이 될수있게 작성하였습니다.

(2) 수험기간

수험기간은 총 2년으로 21년 6월부터 인강수강 , 변리사스쿨에서 60회 대비 1차종합반, 60회 대비 2차 동차종합반을 등록해서 준비했습니다.

2. 1차시험 77.5 평점.

(1) 1차수험생활 중 스터디 활용

22년 1차시험을 보고 76.7을 받고 불합한 이후 서울에 6월초 올라와서 변리사스쿨 1차종합반을 등록했습니다.
1차 종합반에서 제공하는 강의로 대비했었고 별관에 자리를 배정받아 별관에 계시는 1차 종합반 여섯분과 포인트민법 기본서 암기 스터디, 포인트민법 객관식 문제 풀이 인증 스터디, 특허상표 조문암기 스터디, 자연과학 문제풀이 인증 스터디, 인강 수강인증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아주 많이 한 편이라고 생각하며 하루에 정해진 스터디 일과를 마치면 8시간을 채웠고 그 이후 틀린 문제 위주로 오답을 하거나 기본서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별관이나 인마이제이 독서실 사용하는 분들과 위치가 가까워서 자주 식사도 같이 하며 암기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퀴즈를 내며 공부한 내용을 매일매일 확인했습니다.
1차 준비기간동안에는 운동을 주3회 할수있도록 노력했고 시험 세달정도 전부터 최대한 공부시간을 늘려 10시간 가까이 했었습니다.

(2) 민법개론(90점)

민법을 종합반 등록하면서 6월에 바로 포인트객관식을 구입해 문제를 풀면서 류호권 교수님 민법 기본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했었습니다. 요약정리나 단권화를 정말 싫어하는 편이라 포인트민법 기본서에 포인트 객관식에서 틀렸던 내용이나 헷갈렸던 내용을 전부 정리하고 표시하면서 하루 40문제 이상을 목표로 스터디원들과 문제풀이를 매일 진행했습니다. 포인트 객관식 책은 10회독 이상 하였고 시험장에도 포객을 들고가서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종합반에서 매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류호권 교수님 모의고사 해설강의는 실강 혹은 인강으로 꼭 수강했고 헷갈렸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류호권교수님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전부 객관식문제로 한번 넘어지고 나서 보충하는 식으로 정리하여 어려웠던 민법 시험에 90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수기

(3) 산업재산권법 (80점)

1)특허

조현중변리사님 조문특강강의를 수강했고, 조현중변리사님 객관식 문제집문제풀이 스터디, 특허 조문암기 스터디를 통해 특허 정리를 했습니다.

2)상표법

판례강의, 핵심이론정리, 객관식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이후 윤신우 변리사님과 상담을 통해 상표판례들을 원문을 찾아 판례요지를 중심으로 법리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판례 문제풀때 전혀 부담없이 편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조문암기는 특허조문암기 스터디때 상표도 같이 진행하면서 빈칸채우기를 통해서 했습니다.

3)디자인보호법

핵심이론정리, 객관식풀이정리를 통해 가장 짧고 효율적으로 공부한 과목이었습니다. 따로 조문암기는 하지 않았고 기출과 객관식 풀이를 통해 원칙과 예외를 잘 구분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4) 자연과학(62.5)

1)물리 (5/10)

김현완 교수님 기본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하고 객관식강의를 현강으로 수강했습니다. 가장 베이스가 없었던 과목이라 문제 하나 푸는데 10분이 걸릴정도로 힘들었으나 김현완 교수님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 문제에 쉽게 접근하는 방향을 배워 최대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화학(6/10)

김선민 교수님 기본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하고 이후 후속강의인 객관식강의, 핵심파트강의,기출문제풀이,최종정리를 모두 현강으로 수강했습니다. 화학은 암기라는 교수님 말씀과 같이 최대한 교수님 수업때 언급하신 내용들을 외우려고 노력했고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화학스터디에 참여해 제가 정리한 노트를 토대로 문제풀이때 틀렸던 문제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강의도중 수강생에게 질문을 정말 자주하시는 편이시고 무조건 대답을 잘하고싶어서 예습도 열심히 해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3)생물 (5/10)

박윤 교수님의 기본강의,기출문제풀이, 객관식문제풀이를 수강하였고 추가로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던 내용을 최대한 거의 다 암기할수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공부했었습니다.

4)지구과학 (9/10)

고등학교때 지구과학을 했어서 따로 강의는 듣지않고 기출문제만 정리했습니다

3. 2차시험

(1)2차시험 공부기간 및 방법

2월에 1차시험을 보고 바로 다음날 일요일에 동차종합반 설명회에 참석한 후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바로 최영덕 박사님 기본강의를 시작으로 동차 수험기간을 시작했습니다. 1차 준비기간동안 전혀 2차준비가 되어있지않아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그만큼 시간낭비 하고싶지 않아 바로 마음맞는 스터디원을 구성하여 세명이서 매일매일 만나서 민소사례집 스터디, 민소기출문제풀이스터디, 특허상표 지에스에 나온 판례암기스터디, 같이 들은 gs수업 내용암기확인스터디, 저작권법 공부인증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강의 선택시에 제게 주어진 기간이 5개월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동차 기간내에 제가 다 소화할 수 있는 수업을 들으려고 고민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최영덕 박사님이 설명회에서 기본강의를 한달~5주 내로 끝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해주셔서 당장 동차 종합반을 등록했고, 그 이후 사례강의도 저와 잘 맞아 풀 커리를 타게 되었습니다. 특허와 상표는 대형강의 보다 소수강의 위주로 들어가서 첨삭받는편이 좋다는 스터디원분의 말씀에 따라서 변리사스쿨에서 열리는 신규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제 답안지를 직접 채점해주시고 첨삭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수업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머릿속에 해당 과목의 내용이 많다고 해도 답안지로 표현할 수 없으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내용을 제가 스스로 잘 표현했는지 판단해주시고 잘못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gs 수업에서 직접채점, 첨삭을 받았습니다.
스터디, gs 첨삭으로 짧은 기간 안에 저의 실력을 빨리 올릴수 있었던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민사소송법 (51.66)

최영덕 박사님의 기본강의, 사례강의, 동차용 기초gs ,동차용 실전gs, 최종정리강의를 전부 현강으로 수강했고 종합반에서 주는 복습인강으로 제가 부족했던 내용을 다시 수강하면서 정리했습니다.
기본강의를 수강하며 최영덕 박사님이 주시는 기출문제 자료로 스터디원들과 민소기출문제풀이를 하였고 풀답안을 쓰기는 부담이 되어 목차와 간략한 내용만 정리해서 서로 공유하며 기본강의 진도에 맞추어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사님께서 매일쓰기정리를 강의 시작전 풀어보도록 하시고 해설도 수업시간에 해주셔서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강의를 들을때는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내용과 문제를 바탕으로 스터디원들과 회독할 문제를 고르고 복습할때도 목차와 간략한 내용을 복기해보는 식으로 서로 잘 복습했는지 매일 확인했습니다.

합격수기

최영덕 박사님께서 기초gs 실전gs때 제 점수, 제 등수, 문항별 최고점수, 문항별 평균점수, 각 문항별 채점평을 남겨주시고, 그 표와 제 답안지를 기초로 제가 어떤 문제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는지, 많이받을수있었던 이유, 점수를 받지못한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 시간을 항상 모든 수강생에 대해서 가져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피드백 할때 제 답안지와 모범답안을 비교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누가 어떻게 잘썼는지 듣기도 하면서 제가 고칠부분을 찾아서 보완하는 좋은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뒷부분인 병합소송,다수당사자관계소송이 어려웠는데 그때 gs 등수에 충격받고서 복습인강으로 빠르게 그 부분을 회독하고서 박사님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했었습니다.
최종정리 시간에는 최신판례, 타 시험 최근 기출문제를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셨는데 그때 정리해주셨던 판례가 시험 문항 4번에 그대로 나와 잘쓸수있었고 점수도 잘 나올수있었습니다.

저는 최영덕 박사님 답안지 형식을 특허, 상표에 그대로 적용해서 작성했습니다. 문제의 소재에서 내가 쓸 쟁점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후 목차 2번 3번 4번에서 각각의 쟁점을 유기적으로 서술하여 마지막으로 5번의 결론에 쟁점에 대한 간단한언급, 최종적인 결론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민사소송 뿐만아니라 상표, 특허에도 똑같이 쓸수있다는 말씀을 듣고서 각 과목 gs수업답안지에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특히 이번 상표 득점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3)특허법 (52.66)

기초gs, 실전gs ,콜라보gs를 모두 현강으로 수강했습니다.
특허법은 기초gs에서 보충프린트의 내용을 진도에 맞추어 배부해주셔서 기본서같이 gs에서 나온 내용을 체크해놓고 복습할때 찾아보는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실전gs와 콜라보gs에서 문제에 나온 판례원문을 주셔서 판례집으로 활용했습니다.
가장 처음 점수를 받아본 답안지가 기초gs 1회차 답안지였는데, 정말 처참한 점수를 받고 변리사님께 제 답안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쭤봤었고, 그때 직접 답안지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기초 gs에서 제가 1차때 공부하던 특허와 2차에서의 특허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GS에서 제공된 보충프린트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마음가짐으로 특허를 시작했었고 gs에서 나온 판례문구들을 두문자를 따서 스터디원과 주말 저녁이나 평일에 같이 복기하면서 암기한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전gs에서 이번 시험에 나올것같은 쟁점, 판례를 기초로 문제를 구성해주셨고 정말 어려워서 문제를 세번이상 복기하고 다시풀었습니다. 기본서를 볼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gs각개격파 마인드로 보충프린트와 gs문제만 제대로 이해하고 자주나오는 판례문구, 특유쟁점들에서 나오는 목차를 암기하고 가자는 마음으로 실전gs 프린트 자료가 헤질정도로 반복했습니다.

합격수기

(4)상표법 (59)

이성규 변리사님의 기초gs, 한성민 변리사님의 실전gs A, 하프실전gs, 윤신우 변리사님의 콜라보gs를 현강으로 수강하고 이성규 변리사님의 실전gs를 온라인첨삭으로 수강했습니다.

동차기간동안 가장 재밌었던 상표법을 특상 중에 공격과목으로 삼고자 gs강의를 최대한 많이 들었습니다. 상표법은 기본서를 주로 보지는 않았고 gs 에서 나온 내용 체크해놓는 정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대신 gs에서 다루어주신 판례들을 케이스노트에서 찾아 원문을 아이패드에 저장하여 gs에 나온 부분 체크해놓기도 하고 스터디원들과 상표 판례 원문에 gs에서 목차를 다는것처럼 목차달아서 판례의 논리흐름 파악하고 정리한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며 판례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자주나오는 문구 암기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성규 변리사님 기초gs 수업에서 답안지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어주시며 첨삭을 해주셨었습니다. 조문 작성방법, 권리남용, 도형상표의 식별력등 답안지에서 자주쓰일 내용에 대한 작성 기본틀에 대해서 배웠고 배운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수업 gs에서도 활용할수있었습니다.

한성민 변리사님 실전gs,하프gs 수강때 답안지에 나왔던 판례내용들을 두문자를 따서 주말에만 오시는 스터디원과 함께 암기를 진행했었습니다. 한성민 변리사님 실전 gs가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가장 어려운 gs로 생각하고 이정도 풀수있으면 다른 gs들은 쉽게 풀수있겠다는 믿음으로 출제하신 판례, 조치문제 작성방법을 복습하고 스터디원과 함께 모든 회차를 복기하고 암기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윤신우 변리사님 콜라보gs에서 상표가 X,X'으로 주어진 문제가 많았고 제가 접해보지 못한 판례나 문제 유형이 많아서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때 실전에서 당황했을때도 어떻게 아는내용을 토대로 목차를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5) 저작권법 (57)

기본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하고 이한결 변리사님의 실전gs를 수강했습니다.

이한결 변리사님 gs가 4회차로 부담되지않아 선택했었고 최대한 조문 위주로 판례는 자주나오는 저작물에 대한 판례 몇개 정도 암기하고 나머지는 gs에서 나온 판례암기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4. 하루 학습 계획 및 생활패턴

1차 수험기간 동안에는 일주일에 1-2회를 쉬고 시험 직전 3달은 하루정도만 쉬어주면서 컨디션 관리했습니다. 이후 동차기간동안에는 매일 아침 7-8시에 나와서 10시 쯤 들어갔고 늦게 나온날은 그만큼 더 늦게 들어갔으며 도저히 못버티겠는 날엔 오후 3시까지만 하고 집에들어가서 쉬었습니다. 생활패턴은 스터디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해놓은 내용을 꼭 끝마치고 들어갔고 스터디원들과 상의하여 스터디양을 조절하는 식으로 제 모든 생활 패턴은 스터디원과 맞추어서 정했습니다.

합격수기

5. 수험생활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방법

동차기간이 가장 힘들었었고 몸이 힘든것보다 gs 수업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지못한 것, 이전에 했던 실수를 또했던 것, 암기가 도저히 안되어서 손으로 쓰다보니 손목이 아팠던 점이 힘들었기에 멘탈과 손목 둘다 잡기위해 공부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6. 종합반 장점

복습영상이 제공되는것과 여러 상표 강사님들 수업을 들을수있었던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별관 자습실 제공은 개인적으로 잘맞았었는데 개인취향이다보니 장점보다는 좋았던 점으로 선정하고싶습니다.

7. 마치며

믿음의 빛이자 제게 가장 도움을 많이주신 최영덕 박사님께 합격수기를 빌어 또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고싶습니다. Gs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속상해 하던 제게 정말 많은 밥을 사주시고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해주신 덕분에 제가 좋은결과 받을 수 있었고 '유연아, 유연한 사고를 해야지! ' 라고 조언 해주셨던 덕에 제가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신우 변리사님, 한성민 변리사님, 이성규 변리사님 수업 외의 시간에 드린 질문도 자세한 답변과 칭찬과 격려로 힘든 수험기간 잘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경주마같은 동차기간 스터디 계획들을 같이 해나가고 같은 수업을 들으며 동차기간 전부를 함께한 소중한 스터디원 병립,다애,예은, 1차기간때 저의 별관 가족이었던 산돌, 재한, 우현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한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본가에서 무한한 지지와 사랑을 보내준 저의 가족들 감사합니다.

저의 두서없는 수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차합격 할수있습니다!

4-3. [제60회 변리사 시험합격] 2차 시험 합격수기 정예솜 - [디자인보호법 선택 [동차종합반][2차종합반][기득합격]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60기 변리사 정예솜입니다. 글솜씨가 많이 부족하지만, 변리사스쿨 동차 및 2차 종합반에서 기득 기간 동안 수험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또 적어도 이러한 시행착오는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 경험을 적어봅니다. 다만, 지극히 주관적인 수기이니 저 또한 그랬듯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인지 아닌지 고민하여 취사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 1차시험(과목별 공부방법)

민법 87.5 산업재산권법 95 자연과학 67.5

1차 과목은 집에서 구루미 스터디를 하며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 공부했습니다. 대략 1년 동안 토익->민법,물리->특허법,화학->상표법,지구과학->디자인보호법->생물 순서로 공부했습니다.

1차 시험 법과목 공부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조문 및 판례의 전반적 이해 -> 문제 풀이 및 기본서 단권화를 통한 최종적 암기와 시험 전날 1회독을 목표로 했습니다.

2-1. 민법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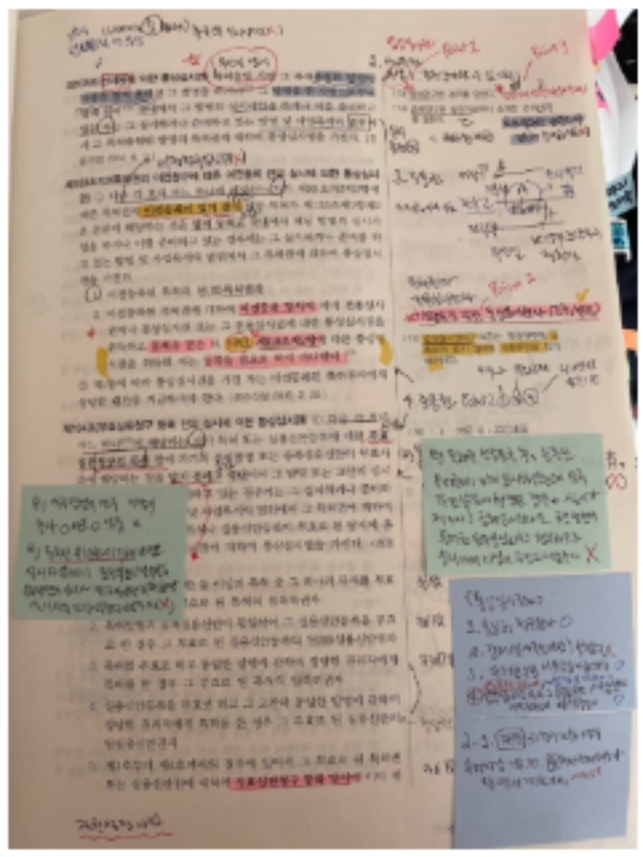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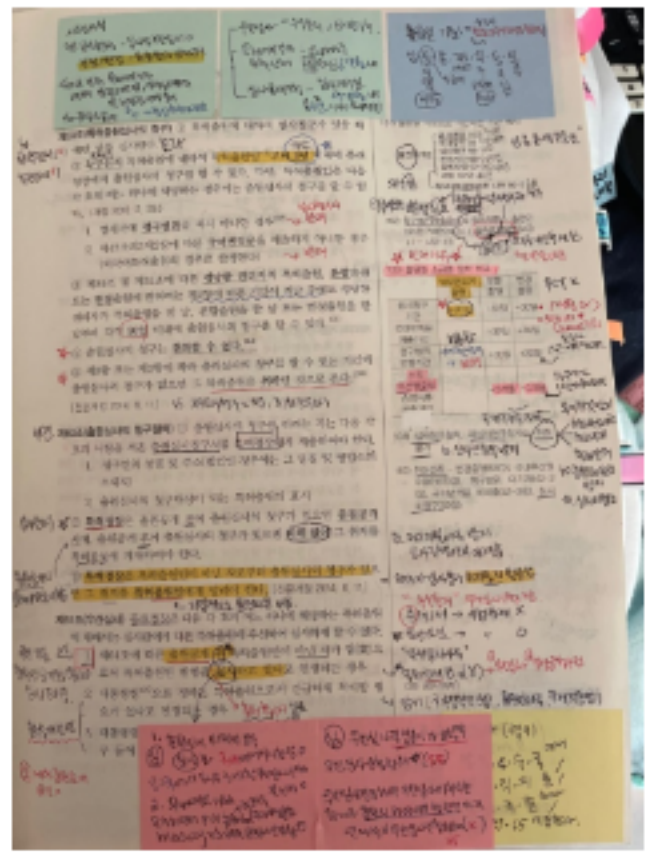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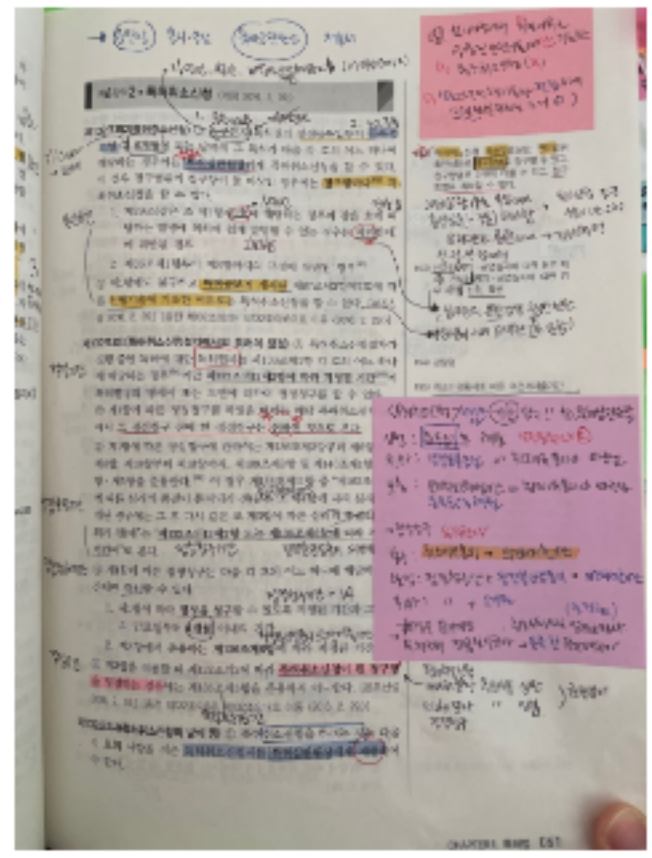
민법의 경우, 기본서 회독과 객관식 문제 풀이의 적정한 비중과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서를 5~6회독한 후 객관식 문제 풀이를 시작하였는데 객관식 풀이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완벽하게 지식 습득 후 문풀 시작하자는 마인드가 잘못된 마인드였습니다. 출제 경향 파악의 중요성 및 기본서 회독보다 문제 풀이 중 틀리면서 기억하는 것이 휘발이 낮은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처음 민법 공부할 때 기본서가 두껍다고 느껴 저만의 요약본을 만들었었는데 이러한 시간에 대해 깊이 후회했습니다. 요약본에는 빠진 내용이 있을수 밖에 없는 점, '같은 책'을 회독하는 것이 위치가 떠오르는 등 중요한 점,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요약본 만드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합격수기

2-2. 산업재산권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1. 특허법 18/20

1차 특허법 공부는 조현중 강사님의 강의 및 교재 외 다른 자료를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기본서는 조현중 변리사님의 조문노트와 판례노트 두 권에 단권화 하였고, 문제 풀이는 ox문제집(1회), 기출문제집(4회), 객관식(약한 파트 위주로 1회)을 풀었습니다. 강의는 기본강의, 조문특강, 판례강의, 심사기준, 최종정리를 수강했습니다.

기본강의와 판례강의는 법 전체 구조 및 실무상 심사 심판 진행 등 특허법 전반의 쉬운 이해를, 조문특강은 조문 뜯어보기 및 비교 표 등 수험적 측면을, 심사기준과 최종정리는 시험이 임박해 혼자 정리하기 힘든 개정 심사기준과 개정법 등의 빠른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2순환 때 이해를, 3~4순환 때 암기를, 5~6순환 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목적과 컨셉으로 반복을 시켜주는 조현중 강사님의 강의 커리큘럼에 만족했기 때문에 타 강사의 강의 또는 자료를 찾아보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ox문제집, 객관식, 기출문제집은 풀이 후 같이 서술 되어 있는 해설을 보고 혼자 오답을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하여 시간을 아끼기 위해 강의를 따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답은 따로 체크해 두고 반복해서 풀고 끝까지 틀리는 지문들은 (1문제가 아닌 5개의 지문별로 뜯어서 공부했습니다.) 조문노트의 해당 조문 또는 판례노트의 해당 판례 위치에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표시해두었습니다.

중요 심사기준 및 최종정리 포인트 또한 조문노트에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표시해두었고, 시험 직전에는 단권화된 조문노트와 판례노트만을 점차 주기를 줄여가며 수회독 했고, 시험 전날 1회독, 전날 1회독 중 헷갈리거나 중요한 것에 표시를 해두고 시험 당일 아침 및 시험장에서 표시만 1회독 했습니다.

1차 특허법 공부는 저에게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조현중 변리사님의 재치와 입담으로 강의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고 1년 동안 커리큘럼을 업로드 되는대로 따라가다 보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현중 변리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합격수기

2. 상표법 10/10

두터운 기본서로 상표법 기본강의 수강 후, 기출문제집을 풀고, 핵심이론정리에 단권화하였습니다. 기출문제집 선택의 이유는 진도별로 편집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였습니다. 또한 상표법은 10문제밖에 되지 않고 1차시험의 경우 판례의 결론 위주로 출제 되기 때문에 두터운 기본서보다는 얇은 핵심이론정리에 오답을 단권화 하여, 시험 전날 및 시험날 아침에 1회독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3. 디자인보호법 10/10

제가 10~11월에 큰 슬럼프에 빠져 12월 이후에나 디자인 보호법 기본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막막했지만, '문제풀이'를 위주로 기본서를 회독해나갔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이 12월에서나 디자인보호법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디자인보호법은 특허와 겹치는 부분이 많고 타 과목에 비해 양이 적으니 낙담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3.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제가 자연과학개론의 성적이 높지 않아, 저의 시행착오 정도 서술하려 하니 이미 잘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스킵하시길 추천드립니다..(ㅎㅎ..)

3월 물리, 4월 지구과학, 5월 화학, 시험 년도 1월 생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제가 생명과학 관련 전공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지구과학 공부를 너무 일찍 시작했던 점(다른 과목에 치여 계속 회독할 시간이 없어 나중에 많은 부분 휘발되어 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물리를 포기하고 화학을 챙기려했던 점(화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기출을 반 이상 맞추지 못해 막판에 화학 포기하고 물리 챙기려 하니 골치 아팠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3배 이상 공부한 화학보다 물리를 3~4문제 더 맞췄습니다)으로 고생했습니다..

3. 2차시험(과목별 공부방법)

총점 58.11 (25등)

변리사스쿨 동차종합반 및 2차종합반에서 공부했고, 기득으로 합격했습니다.

2차 시험 합격 수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서술하겠습니다. 첫 번째, 2차 시험의 암기 지옥을 그나마 쉽게 헤쳐나가기 위해 했던 여러 시도들, 두 번째, 답안지 관련하여 점수가 높았던 문항의 제 목차 및 답안 특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합격수기

3-1. 특허법

1. 동차 기간

주말에는 조현중 변리사님의 기초gs, 실전gs 커리를 따르고 평일에는 인터넷 강의로 사례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제 동차 기간 목표는 사례집 핸드북의 완벽한 암기였습니다. 종합반에서 만난 스터디원과 점심 먹으며 사례집 목차 암기 -> 키워드 암기 -> 문단 암기 순으로 목표를 잡고 꾸준히 회독해 나갔습니다. 동차생의 경우 gs 복습에 치여 평일 특허 공부를 따로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례집 공부 시 '사례강의 수강' 은 꼭 병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강의를 통해 출제 경향 파악 및 답안지 논리 구조의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따라서 단순 암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민사소송법 공부 등으로 시간이 매우 부족했던 생동차생이었으므로 기본서 위주 공부가 아닌 사례집 위주 공부라는 공격적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2. 기득 기간

주말에는 실전gs를 수강하며, 평일에는 기본서, 판례집 회독 및 기출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월별로는 2월 판례강의 수강, 3월 기출문제 풀이를 시도했으나 어려움을 느끼고 다시 기본강의 수강(4월중순까지), 5월 이후 기본서 및 판례집 회독을 하였습니다. 기득 기간 4월까지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있어 심적으로 매우 불안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차 때 시간에 치여 이해의 깊이가 부족했다면, 기본강의를 들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종합반 스터디원들과 점심 먹으며 매일 판례 3개씩 설명하는 스터디를 했는데, 판례의 경우 혼자 읽는 것 보다 스터디원들과 사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많이 되던 것 같습니다.
기득 기간 목표는 시험 전날 판례집(최신, 중요, 약한 판례 따로 표시) 및 기본서 1회독이었고, 기본서 회독 및 암기 전화 스터디를 통해 회독을 반복하며 점차 속도를 높혀 이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3. 답안지 58점

문제 2, 문제 3이 높은 점수로 채점되었는데
-문제2 관련
설문1, 구법/원심판례 짧게라도 서술. 설문2, 선결적 논점으로 심리범위 관련 짧게 서술. 설문3 역시, 주논점 판례 의외 선결적 논점으로 의의, 취지, 당사자적격 일반론 짧게 서술.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3 관련
발명의 경우 물건/방법발명 case분류, 사람의 경우 을/병 분류하여 따로 결론, 침해의 경우 직접/간접침해 분류, 행위의 경우 각 행위별 분류 하여 목차를 각각 따로 잡았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서술했던 목차가 운좋게 고득점 받았으나, 매년 채점위원이 다르고 제가 서술한 내용들에 앞서 '주논점' 파악하여 '주논점' 충실히 적고 답 맞추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3-2. 상표법

1. 동차 기간

주말에는 변리사스쿨 종합반 강사님들의 상표법 기초gs, 실전gs 커리를 따르고 평일에는 인터넷 강의로 기본 강의, 판례심화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종합반 강사님의 상표법 gs는 처음 2차 공부 시작 시 거부감을 해소시켜주었고 이것 저것 많은 tip을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rough한 기출 문제 적응을 위해 동차생이더라도 gs와는 별개로 기출을 따로 풀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gs 수강 처음 한 달 동안은 답안지를 미리 받아 통째로 암기해 갔습니다. 이러한 공부법은 2차 시험 문제를 처음 접해보는 3월 초기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오래 지속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암기는 남들보다 앞설 수 있으나, 목차 구성력과 논점 추출 실력이 뒤쳐질수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기득 기간

1월~6월까지 빠짐없이 gs 현장 강의를 수강하여, 거의 6~7개의 gs를 풀었으나, 개인적으로 상표법 gs는 2~3개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타 과목 공부에 치여 시험 전 4개 이상의 gs를 복습하기 어렵고, 다루는 판례들이 겹쳐 그 이상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표법의 경우 강사님별 gs 스타일 차이가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2명 이상' 강사님의 문제 스타일을 접해본 것은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표법의 경우 다논점 또는 여러 조문 서술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강사님 gs를 수강하며 강약조절을 배웠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3. 답안지 56.66점

문제3이 20/30점으로 채점되었는데

거절결정의 타당성 및 대응전략 별도 목차 잡기, 요건 세세히 나눠 따로 목차 잡기, 판례 라벨링 따기, 사안 포섭시에도 요건 별 소목차 잡기, 법리로 적은 내용들은 사안포섭에 전부 포함 시키기 등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타 과목들보다 사안 포섭에 신경 썼고, 실제 시험에서 평균 8줄 이상 (소목차 포함) 사안포섭 했던 것 같습니다

3-3. 민사소송법

1. 동차 기간

변리사스쿨 종합반에서 만난 스터디원과 사례집 스터디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스터디 방식은 처음엔 논점 추출, 다음 회독 땐 목차 쓰기, 그 다음엔 근거 한두개 서로 얘기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또 1단원부터 다음엔 끝에서부터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하루에 50page 이상 목표 세웠던 회독 때 보다, 하루에 20page씩 천천히 진도를 나가며 스터디 하던 회독 때에 큰 성장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동차 기간에는 시간적 압박으로 천천히 진도 나가는 것이 어려운 점이 당연하나, 민사소송법은 워낙 양이 방대하므로 이해 없는 암기란 매우 어려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합격수기

2. 기득 기간

2월 최영덕 박사님의 실전GS를 수강했습니다. 이전에 공부해왔던 강사님과 다른 강의 내용이 처음에는 어려웠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답안지 열람 및 복기를 하고 나니 짧은 기간이었으나 최영덕 박사님의 첨삭이 저의 간결한 목차, 논리적인 답안지 작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강사들과 달리 박사님은 수업 후 수강생별로 1대1 직접 첨삭 해주시는데, 이과생으로서 모르고 있던 제 목차의 오류와 깔끔하지 못한 논리에 대한 지적이 특히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사안포섭 목차와는 별개로 결론을 항상 적으라고 피드백 주셨던 점이 기억이 납니다.

3. 답안지 59.66점

답안지 열람하니, 모든 문항, 쟁점정리 - 법리 - 사안 - 결론 형식을 적용한 답안이었습니다.

문제2번 점수가 높게 채점되었는데 문제에서 묻는바, 주어진 논점을 빠뜨리지 않고 -여부라는 목차로 잡은점, 의의 요건 시기 방식 사안 등으로 내용을 풍부히 적은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3-4. 선택과목

디자인보호법 58.66점

지겹게 보셨겠지만 매일 1시간씩, 남들 하는만큼만 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과목이라 느낍니다.

4. 하루 학습 계획 및 생활 패턴

-하루 학습 계획 관련

계획 세우는 것을 좋아하여 월별, 주별, 일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변리사 시험 특성상 많은 과목을 치르다 보니, 계획이 틀어지기 쉬우므로 계획을 너무 열심히, 먼 날까지 세우시다 시간 낭비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과목이 포함된 것의 장점으로는 지루할 때마다 또는 졸릴 때마다 과목을 바꿔갔던 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생활 패턴 관련

아침 8시~9시 정도 종합반 사람과 출석 스터디를 했고, 이와 더불어 종합반의 출석 체크 시스템이 꾸준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늦잠자고 싶다가도 출결 우수자 선정 시 주어지는 기프티콘 보상을 생각하며 학원에 출석했고, 하루하루 출석하다 보면, 여태 출석한 것이 아까워 출석했고 공짜 기프티콘을 사용하여 음료를 마시며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하원 시간은 10시~11시정도의 스터디를 한적이 있으나, 이를 매번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던 때에는 매일 지키다가도 힘든 주간에는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합격수기

5. 수험생활 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방법

제 수험생활은 모아니면도였던것 같습니다. 열심히 할 때는 남들보다 제일 먼저 학원에 와서 제일 늦게 집에 가다가도, 금세 지쳐 일 주일 땡땡이 칠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때는 1, 2차 시험 모두 시험 2~3달 직전에 약 1~2달의 긴 기간의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였는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ㅎㅎ..)슬럼프가 끝나고 정신이 들었을 때 우울증이 심하고, 정말 내년 시험을 기약하고 싶었지만 하는데까지 해보자 할수있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순공 14~17시간씩 벼락 쳤습니다.

저처럼 기복이 심한 공부 스타일은 고시 공부에 있어서는 매우 안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므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나 이미 슬럼프에 빠져계신 중 제 글을 읽고계신다면, 1차때는 10~12월, 2차때는 4~5월 슬럼프로 거의 공부를 놓았던 저도 합격해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1차 때는 운좋게 꼴찌로, 2차 때는 운좋게 높은 등수로 합격하게 되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이 좋을 수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합격으로 이끈 나만의 학습전략 KEY POINT

시험 직전 1~2달 본가에서 공부했었는데 오랜만에 본가를 갔더니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옆, 세면대 앞, 냉장고 홈바, 책상 앞, 책상 옆 침대 머리맡, 공부방 문, 드레스룸 문 등 많은 곳에 포스트잇이 붙어있었습니다. 법과목 시험은 '암기'가 key point라 생각합니다. 암기를 위한 기본강의 수강, 암기를 위한 이해, 암기를 위한 스터디, 암기에서 비롯 되는 답안지 작성. 제 합격에는 남들보다 크게 뛰어난 공부 비법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 열심히 이해하고 스터디하고 암기했던 것이 시험장에서 민사소송법 20p, 특허법 19p, 상표법 18p (신기하게 투자한 공부시간 비례 답안지 양이 나오더군요)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7.종합반 커리큘럼의 장점

제가 실제로 도움 느꼈던 점을 적어보자면,

1. 고민 기간 최소화

1차가 끝나고 또는 동차가 끝나고 뭘 해야 하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고민이 시작되는데 변리사스쿨 종합반 등록후 현장강의 커리큘럼을 따르게 되면 공부 시작하는데 까지 고민 시간이 적어지는 점

2. 스터디

종합반에서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끼리 조를 만들어 조원들과 티타임 등을 갖게 해주는데 여기서 만난 조원들과 스터디를 쉽게 꾸릴 수 있고 인마이제이나 별관 빈 강의실 등 스터디 장소가 공부장소와 가까운 점

3.출석체크/과제체크/에프터케어 시스템

등원은 출석체크로, 하원은 과제체크로, 동차 시험 직후 기간은 에프터케어 시스템으로 공부의 강제성이 부여되는 점 (특히나 동차 시험 직후 9~12월 강제성 부여에 도움이 됨.) 등이 있었습니다.

8. 마치며

-감사의 인사

제일 먼저, 무슨 일이든 언제나 내 편 되어주고 항상 응원해주고 공부할 동안 맛있는거 많이 해주신 울 엄마, 고시생 선배로서 큰 딸 매번 울면서 전화할 때마다 따듯한 위로와 멋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은 정신적 지주 울 아빠, 우울할 때 공부 안 될때마다 맛있는거 사주고 힘들때는 데릴러오고 항상 옆에 같이 있어준 또 한명의 정신적 지주 남자친구 지율이, FP에게 TJ의 생각을 전달하여 멘탈관리 도와준 순창님, 만날때마다 까까에 이것저것 많이 챙겨준 이쁘고 멋진 정하 언니, 공부 안 될때마다 수다 떨어준 동환이, 변리사스쿨 종합반 생활 동안 많은 도움과 케어 주신 사미님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공부 당시에는 제 실력에 자신이 없었고 긴 슬럼프 기간 또 수많은 시행착오들 속에 뒤쳐져 있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도 이정도 슬럼프는 겪는구나,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었구나' 합니다. 제 수험기간 동안 별다른 비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변리사 2차 시험은 특히나 매년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 달라지는 논술 시험인 만큼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공부 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 하시는 수험생분들 누구든 합격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